



안치홍

타율 1위 KIA ○ 홈런 1위 SK

주말 챔스필드서 화끈한 화력대결

챔피언스필드에서 화력 싸움 '제2라운드'가 펼쳐진다. 대구, 고척을 둔 KIA 타이거즈가 18일부터 SK 와이번스와 안방에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타율 1위'와 '홈런 1위'가 맞붙는 흥미로운 싸움이다.



두 팀은 지난 4월 3일 시즌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첫 대결을 벌였다. 첫 경기에서 3-13으로 대패를 당했던 KIA는 4일에는 연장 10회 타진 이범호의 결승 솔로홈런 등을 앞세워 9-6으로 승리했다. 5일에는 비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화력 싸움 1라운드의 승자는 가리지 못했다.

KIA는 17일 경기 전까지 0.303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0.293의 두산에 앞서 팀 타율 1위에 올라있다. 개막 두 경기 만에 장단 16안타로 14점을 만들어내는 등 팀 타율 1·2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SK는 홈런의 팀이다. 팀타율은 0.287로 전체 4위지만 72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날려 보내면서 2위 kt(55개)를 멀리 따돌리고 홈런 1위팀으로 명성을 과시하고 있다. 경기당 평균으로 따지면 매일 1.7개의 홈런을 쏟아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KIA는 50개의 한방으로 홈런 3위에 올라 있다. 타격의 팀, KIA의 대표주자는 안치홍이다. 안치홍은 꾸준하면서 강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안치홍은 0.368의 타율로 팀 내 1위, 전체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개막 후 기록 없이 팀 타선을 지켰던 안치홍은 4월 19일 손가락 미세 골절로 엔트리에서 빠지기도 하는 등 시련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부상이 안치홍의

화력을 막지는 못했다. 부상 전 18경기에 나와 타율 0.373, 6홈런 18타점을 기록했던 안치홍은 부상 복귀 후 13경기에서도 0.360의 고공 타율 행진을 하고 있다. 3개의 홈런과 함께 18타점을 올린 그는 주자 앞에서 더 강하다. 득점권 타율이 0.457까지 오르면서 팀에서 가장 많은 6개의 결승타를 남겼다.

안치홍은 파워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팀의 3900번째 홈런으로 기록된 스리런을 포함 9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보내면서 팀 내 홈런 1위, 전체 공동 8위다. 홈런의 팀, SK 타선 전면에는 최정이가 있다.

올 시즌 치열한 홈런왕 경쟁을 예고했던 박병호(백선)가 부상으로 빠진 사이 18차례 손맛을 보면서 홈런 부문 1위 질주를 하고 있다. 18개의 홈런과 함께 가장 많은 104루타도 쌓았고, 득점(39)도 1위다.

파워로 리그 1위 자리를 달리고 있지만 최정의 세밀함은 아쉽다. 올 시즌 타율은 0.271, 득점권 타율도 0.270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정에게는 상대 배터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홈런 군단'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 최정과 함께 로맥(13홈런), 김동엽(10홈런), 한동민(8홈런), 정의운(7홈런)이 무시무시한 홈런 타선을 구축하면서 SK 폭발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타율과 홈런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두 팀의 대결에 주말 챔피언스필드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정

축구 태극전사들 21일 월드컵 출정식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정하는 축구 대표팀의 출정식이 오는 21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출정식에선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 등 월드컵을 앞두고 소집되는 28명의 선수와 특별 제작한 단복을 입고 나온다.

선수들은 레드카펫과 무대에서 팬들에게 인사하며 러시아 월드컵 필승을 다짐한다.

이 자리엔 역대 월드컵에서 활약한 차범근, 최순호, 홍명보, 서정원, 최진철, 이은재 등 선배들도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한다.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가도 발표될 예정이다.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 소집과 맞물려

별도 행사를 기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숙소나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 집결하는 방식으로 소집이 이뤄졌다.

대한축구협회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월드컵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출정식을 준비했다. 출정식은 지상파 3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송기용 축구협회 홍보마케팅실장은 "러시아 월드컵을 향한 대장정을 국민과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로 마련했다"며 "축구팬들과 인근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하는 축구팬 1000명에게는 러시아 월드컵 슬로건 'We, The Reds!'가 적힌 머플러가 제공된다. /연합뉴스

이승우 내일 조기 귀국... 유럽과 속속 합류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 소집명단(28명)에 이름을 올린 예비 태극전사들이 21일 출정식 행사로 월드컵 여정을 시작한다.

축구대표팀에 깜짝 발탁된 20세 기대주 이승우(엘라스 베로나)는 19일 조기 귀국한다.

축구 대표팀 소집 대상 선수들은 2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월드컵 출정식에 참석한 뒤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로 옮겨 담금질을 시작한다.

월드컵 출정식에는 소집대상 28명 가운데 소속팀 경기와 항공 일정 탓에 조금 늦게 도착하는 정우영, 김승규(이상 일본 빗셀 고베),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권경원(대전 히안젠) 등 4명이 빠진다.

주말 경기가 예정된 4명은 오후 4시 30분부터 파주 NFC에서 진행되는 첫 훈련에는 참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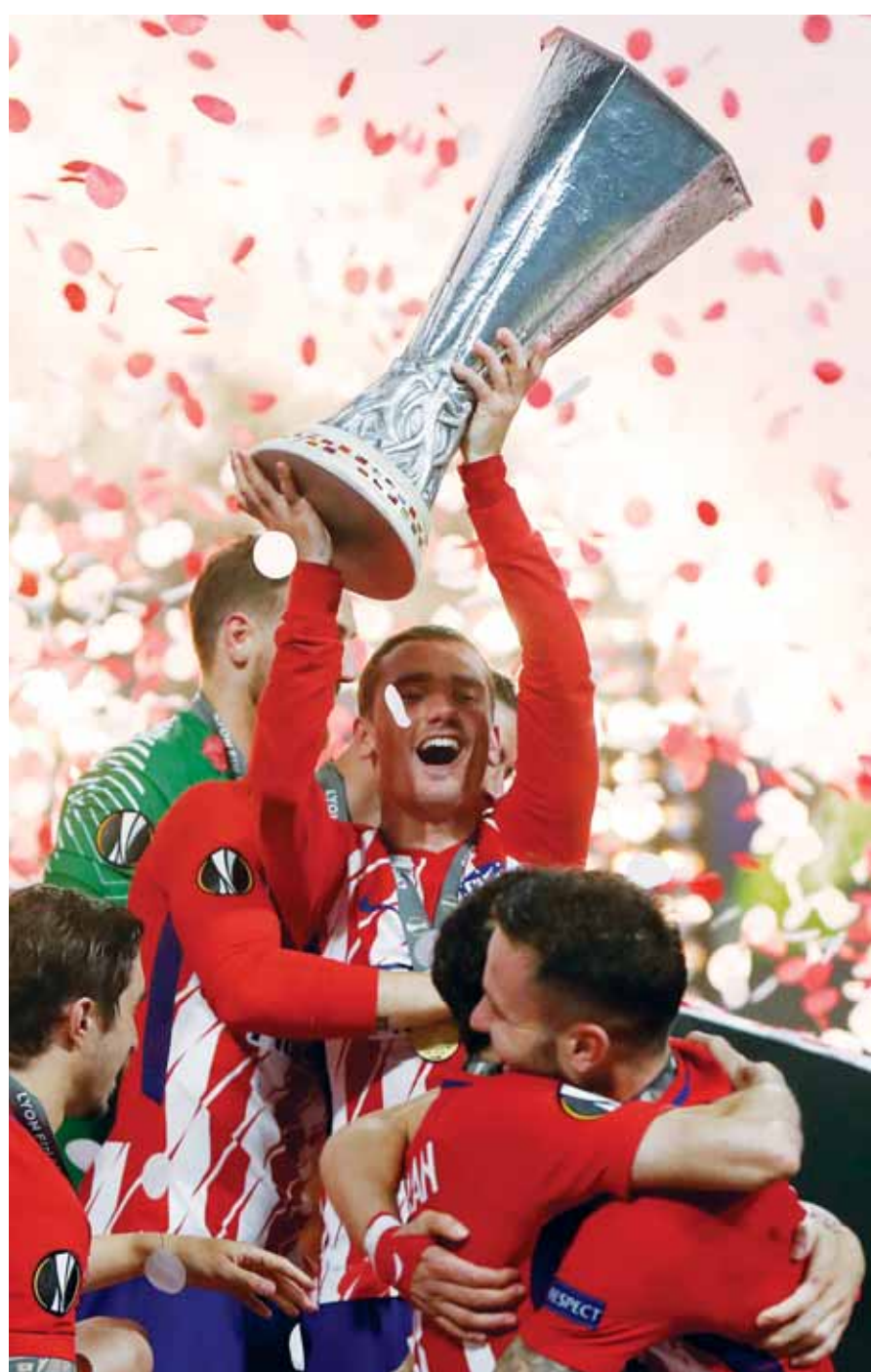
유럽과 선수들도 속속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의 에이스인 손흥민(토트넘)과 러시아 월드컵 출정 희망을 살린 이창용(크리스탈 팰리스), 스완지시티의 2부 강등 확정 후 결별을 선언한 대표팀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시즌을 마치고 일찌감치 귀국했다.

유럽과 7명 중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이 무릎 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가장 먼저 들어온 가운데 시즌을 마친 황희찬(잘츠부르크)도 곧 귀국길에 오른다. 프랑스 리그앙(1부리그)에서 뛰는 권창훈(디종)은 주말 경기까지 마치고 귀국한다.

반면 신태용호에 '깜짝 승선'한 이승우(엘라스 베로나)는 유벤투스와 최종전에 참가하지 않고 일찍 귀국길에 오른다.

소집대상 28명의 절반인 국내와 선수들은 19일과 20일, 21일에 K리그1(1부리그)과 K리그2(2부리그)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로파리그 우승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타드 리옹에서 열린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올림피크 마르세유(프랑스)를 3-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6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연합뉴스

광주 FC, 원점서 다시 시작

20일 오후 6시 안양서 FC안양과 원정경기

프로축구 광주 FC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광주는 오는 20일 오후 6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FC안양과 2018 K리그 1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4월 펼쳐진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순위싸움의 '다크 호스'로 떠올랐다. 하지만 5월 2경기에서 2패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꺾였다.

상대과 리그 1·2위를 달리는 성남과 부천이었다고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패배다. 특히 앞선 성남 홈경기 패배는 원정 4연전 및 휴식기를 앞두고 마지막 홈팬들을 만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앞선 10라운드 경기까지 5실점으로 견고함을 과시했던 수비진이 한 번에 3골을 허용했던 만큼 더 뼈아픈 패배가 됐다.

7위로 밀린 광주 입장에서 연패 탈출이 급선무다.

광주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선 과제다. 광주는 앞선 라운드에서 3실점은 했지만 여전히 현재 리그 최소 실점(8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는 만큼 공격의 세밀함이 필요하다. 나상

호-정영홍-김정환 등 측면을 활용한 공격으로 상대 수비를 뚫어야 한다.

박진섭 감독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부분은 정신력이다. 안양이 승 없이 3무 8패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첫 승이 간절한 상대인 만큼 더욱 집중해야 한다.

광주는 안양을 시작으로 원정 4연전을 치러야 하는 만큼 체력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더위가 시작될 만큼 이동에 의한 체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다. 컨디션 유지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광주에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 성남전에서 결장했던 수비 핵 이한도가 경고누적 징계에서 벗어난다. 다시 그라운드에 오른다. 이한도를 중심으로 '짙물 수비'를 구사하면서 상대의 수비 약점을 공략해야 한다.

최근 5연패의 부진에 빠져 있는 안양은 최근 4경기 연속 3실점을 하는 등 리그 최다 실점(21실점)으로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으로 안양의 골문을 여는 게 광주의 연패 탈출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남녀 단체전 정상 노린다

작년 세대교체 과도기에도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배드민턴 대표팀이 올해는 남녀 단체전 세계 정상을 노린다.

김경진 감독이 이끄는 배드민턴 대표팀은 오는 20일 태국 방콕 임팩트 아레나 스타디움에서 개막하는 세계남자단체선수권과 세계여자단체선수권 대회에 출전한다. 대회는 단식 3경기과 복식 2경기 등 5경기 치러 3경기를 먼저 이기는 국가가 승

리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한국 남자배드민턴은 사상 첫 우승컵을 노린다. 2010년 사상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던 한국 여자배드민턴은 8년 만에 우승 탈환에 도전한다.

세대교체 중인 대표팀은 기량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대표팀은 지난해 스타 선수의 부재 속에서도 '최강' 중국을 꺾고 수디르만컵(세계혼합단체선수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연합뉴스